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6월 7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

잠언3:5-8 / 새찬송가 393 (통일 420) 오 신실하신 주

1.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이 총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하는 것을 ‘존재론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이 주어졌고 존재하게 되었음을 또 그 관계를 통해 축복이나 저주를 상이나 벌을 받으며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존재론적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관계론적 생각’이 총만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론적인 생각으로 총만한 믿음의 위인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임신한 한나의 찬송이 그러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한 욥의 고백이 그러합니다(삼상2:4-7),(욥1:20-22).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면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느냐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잠3:6).

2.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모든 사소한 일에도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만물과 자연을 통해 모든 세상만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일반계시 또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시19:1-4). 더불어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합니다(사30:21). 예수님은 낮밤을 양 떼와 함께 있으면서 양 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 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일상에서 늘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0:27). 실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관심을 갖지 않

습니다(욥33:14). 성경은 이런 자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행7:51).

성령세례의 핵심 체험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외적 현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관심을 두고 이를 듣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요16:13-15).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곧 모든 구원과 치료와 문제 해결과 축복과 기적의 시작이요 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실행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 시키려 하는 것에 있습니다(삼상15:22). 또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발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에 나타난 발람의 잘못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원했을 때(민22:6), 분명히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세 번 모두 축복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간교한 꾀를 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듣기를 거부하면 당대 최고로 영험한 예언자 발람처럼 미련하고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고자 하고 그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잠3:7,8).

< 적용 & 실천 >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드리고 그 뜻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